

문재인 “정권교체 이뤄 적폐청산”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57% 득표 본선 직행
두번째 대권 도전 ... 안희정 2위·이재명 3위

‘선택 2017’ 대선 D-3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이날 수도권·강원·제주지역 경선을 끝으로 모두 4차례의 지역 순회경선 결과에서 총 누적 득표율 57%를 기록한 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인 수도권에서 막판 대역전을 기대했지만, 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따른 과반 득표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19대 대통령 후보로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마지막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 60.4%의 득표율로 울리며 과반의 4연승으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시장은 22%, 안희정 지사 17.3%, 최성 시장은 0.3%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막판 대역전은 나오지 않았다.

문 후보는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등 이날까지 모두 4차례 실시한 권역별 순회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으면서 경선 과정 내내 흔들림 없는 ‘대세론’을 과시했다.

문 후보는 전국 대의원 투표, 국민·당원 ARS투표, 투표소 투표, 재외국민투표 등 모든 경선 결과 총 유효투표수 164만2640표 가운데 누적 득표수 93만6419표, 득표율 57%로 결선 투표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19대 대통령후보자 경선결과 <전국, 단위:표>



안희정 지사는 35만3631표(21.5%)를, 이재명 시장은 34만7647표(21.2%), 최성 시장은 4943표(0.3%)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경선 직후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선언한다”며 “국익보다 앞서고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69년 전 오늘 제주에서 이념의 의미도 모르던 양민들이 이념의 무기에 희생당했다. 이념 때문에 갈라진 조국은 지역·세대·정파가 갈리는 분열·갈등·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상식과 몰상식, 공정과 불공정, 미래개혁신력과 과거 적폐세력에 대한 선택”이라며 “적폐연대의 정권연장을 막고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항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수도권, 강원, 제주 선출대회를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항뉴스>

“용서받지 못할 자”

전두환 회고록 “5·18은 폭동, 발표명령 없었다” 망언
광주시민들 “학살범이 반성은 커녕 왜곡·왜변” 분통

전두환 전 대통령이 3일 “5·18사태는 폭동으로 재조사·재평가가 필요하다”, “광주에서 국군의 살상행위는 없었고 발표명령도 없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2면>

그는 또 “나는 광주사태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씩곳에 내놓은 제물이며, 광주사태 총격이 가시기 전 대통령이 된 것이 나의 원죄”라는 등의 왜변을 토해 내면서 5·18희생자 단체, 광주전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12·12 군사반란과 5·18내란 목적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 자신의 주도하에 자행된 광주학살을 부정하고, 국군의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5·18을 ‘폭동’으로 부르며 재평가를 요구하면서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는 망언을 담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시종일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신 ‘광주사태’ 또는 ‘5·18 사태’라는 표현을 썼다.

사법적·역사적·입법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은 것도 무시하고서 폭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근본적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5·16 쿠데타와 3·1 운동을 예로 들며 5·18은 폭동이라고 역지를 부렸다. “맨손에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친 기미 독립선언을 3·1 운동’이라고 부른다”며 “빠앗은 장갑차를 끌고와 국군을 죽이고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행동을 3·1 운동과 같은 ‘운동’이라고 부를 순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사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조



전두환

사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주사태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씩곳에 내놓은 제물이 없을 수 없다고 하겠다”며 자신을 ‘제물’에 비유했다.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주장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군 손을 빌려 총칼로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른 학살범이 반성하기는커녕 거짓과 왜곡, 역지로 또 한 번 피해자와 광주전남 지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전두환의 역사 왜곡, 회고록 발행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를 다시 법정에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新湖南誌

보트 타고 노닐던 경양방송 ▶18면



‘호수의 여왕’ 유소연

LPGA 상금·평균타수 1위 ▶20면

과체중 세월호 육상 거치 ‘비상’

19개 구멍 뚫고도 배수 안 돼 ... 트랜스포터 24대 추가 투입

세월호의 육상 거치에 비상이 걸렸다. 선체 무게를 줄이려 19개의 구멍을 뚫었지만 진흙에 막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

했던 6일 세월호 육상 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기사 6·22면>

김장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후 4시50분까

지 세월호 화물칸인 D데크 좌현 측에 목표한 21개 중 19개의 구멍을 뚫었다”며 “그러나 대부분 천공에서 바닷물보다 진흙이 나오고 있어 (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천공의 지름은 70mm다. 한 두 군데 구멍에서만 물이 나오고, 나머지는 막대로 찌르면 진흙만 간간히 떨어지는 상태다. 진흙도 대부분 이미 굳어 있어 이를 빼내기가 쉽지 않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수부와 선체조사위는 대안으로 모듈 트랜스포터 24대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24대가 추가되면 과체중 600t의 무게를 감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체의 물을 빼지 않고도 세월호를 통해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천공을 하지 않고도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구멍을 뚫는 등 세월호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리 함께 해요
광주사랑 문화시민운동

오래! 광주, 참 좋아요

활기차서 좋아요

• 나눔·봉사 실천하기
• 어린이·청소년 격려하기

자랑해도 좋아요

• 광주 맛·명소 자랑하기
• 친구, 광주 초대하기

광주에서 좋아요

• 광주 역사문화 이해하기
• 생활 속 인권 실천하기

깨끗해서 좋아요

• 나부터 질서·정결 참여하기
•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하기

함께하면 좋아요

•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 이웃간 배려와 칭찬하기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광주!